



희망풍선 멀리 멀리 날아라 지난 22일 광주시청 앞 광장에서 열린 '사랑의 산타 원정대' 발대식에서 강운태 광주시장, 조호권 시의회의장, 최삼영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광주본부장, 동성여중 학생들이 '희망풍선'을 하늘로 날리고 있다. 원정대는 자원봉사자와 후원자 등 600여명으로 구성됐으며 보육시설과 저소득층 500세대에 선물을 전달한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지역정치권 '흑한의 계절'

대선패배로 입지 줄고 변방 추락 가속
박지원 원내대표·이용섭 정책위장 사퇴

광주·전남 정치권이 대선 패배에 따른 심각한 '정치적 흑한기'에 직면하고 있다. <관련기사 4면>
당장, 이번 대선에서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에 예상 밖의 폭발적 지지를 보여줬던 지역 민심에 얼굴을 들지 못할 처지다.
대선 패배를 뛰어넘어 대선 결과가 정치적으로 호남의 고립 구도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대선 기간 투표 참여와 문 후보 지지를 호소했던 지역 정

치권으로는 '유구무언'의 입장에 처한 것이다.
조선인 박해자 국회의원(서구 갑)은 "지역민에게 죄스럽고 부끄러워 지역구를 내려갈 수도 없다"며 "이러한 결과를 초래한 민주당은 쇠신을 거론하기에 앞서 광주·전남 지역민에게 고대죄를 해야한다"며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 내부에서 지역 정치권의 입지는 더욱 좁아졌다.

대선 패배의 책임을 지고 박지원 원내대표(목포시)와 이용섭 정책위의장(광산 을)이 사퇴했기 때문이다.
대선 패배의 책임을 진다(진노무현) 그룹이 아닌 광주·전남 정치권이 지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전개된 것이다.
결과적으로 당내 리더 그룹에서 지역 정치권은 사실상 실종된 상황이다. 앞으로의 전망도 어둡다. 원내대표 경선 등 민주당 지도부에 진입할 수 있는 정치력과 리더십을 갖춘 인물을 찾아보기 힘든 상황이기 때문이다.
3선 이상의 지역 국회의원은 그동안의 정치적 안주 리더십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다.

지역 초·재선 의원들도 전문성은 있지만 아직까지 괄목할 만한 정치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 정치권이 계속해서 민주당의 중심보다는 변방에 머물지 않는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치력 부재 등으로 민주당의 쇠신 과정과 범야권의 정계 개편 과정에서 각 계파에 줄서기를 하며 이합집산을 거듭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같은 정치적 무기력은 앞으로도

상당기간 대선 주자를 배출하지 못하는 등 광주·전남지역 정치권의 몰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크다 지적이다.
이런 가운데, 이번 대선을 계기로 광주·전남 정치권이 과감한 도전과 비전 제시 등을 통해 새로운 도약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3선의 주승용 의원(여수 을)은 "민주당 쇠신 과정에 호남 정치권이 목소리를 높이고 주도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며 "지역 정치권이 다시 눈치보거나 줄서기에 나선다면 지역과 역사와 시대에 죄를 짓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재선의 이윤석 의원(무안·신안)은 "지역 정치권의 소통을 강화, 신뢰를 형성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며 "어려운 시기일수록 '인동초' 정신으로 견디며 희망과 비전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지역 정치권이 민주당의 쇠신과 정계개편 과정에서 어떠한 도전과 투쟁력으로 새로운 비전을 창출해 나갈 것인지 주목되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몰표 대선패배 호남 상실감 딛고 탕평·대통합 통한 재도약 기회로

‘묻지마 지지’ 민주당 환골탈태 주문도

18대 대선에서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에게 ‘몰표’를 던진 뒤 대선 패배 상실감에 빠진 광주·전남 지역민심이 향후 정치적 고립을 우려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에 대해서는 과감한 견제와 비판을, 새 정부에는 힘을 보태 지역 도약의 계기로 삼자는 여론이 일고 있다.
<관련기사 3면>

16일 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 경제계 등에 따르면 이번 대선에서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에게 90% 이상의 압도적 지지를 보낸 광주·전남 지역민들은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당선으로 그동안 인사와 경제 분야 등에서의 소외감이 더욱 소외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분위기다.
정권교체와 새 정치에 대한 열망 속에 민주당에 대한 압도적 지지를 보냈지만, 호남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박근혜 후보를 선택했다는 점에서 호남이 향후 정치적으로 고립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 때문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박 당선인이 선거 과정에서 호남 소외 해소와 동서화합, 대 탕평 인사를 통한 국민대통합을 약속했던 만큼 새 정부 들어 이 같은 약속이 실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박 당선인이 평소 약속대로 진실하고 실질적인 영호남 화합 행보를 취함으로써 김대중 전 대통령과 나눴던 동서화합 의지를 실현해 줄 것으로 바라보고 있다. 따라서 기왕 당선된 박 당선인에게 힘을 실어 인사 소외를 없애고 지역 공약 실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조정관 전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우선 지역에서 국민 과반수 이상의 지지를 받아 당선된 박근혜 당선인을 인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부족하지만, 기대하고 요구하는 긍정적인 자세가 지역사회에 필요하다"고 말했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도 최근 논평을 통해 "박 당선인이 누누이 강

조한 대통합과 시대교체가 특정 세력과 그에 동조하는 이들로의 통합·시대교체를 말하는 것은 아니라고 기대하고 있다"며 "시민사회도 새로운 변화를 지역에서부터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아름다운 단일화 실패' '친노 프레임' '중도·수도권에 대한 선거 전략 부재' 등으로 참담한 대선 결과를 안긴 민주당에 대한 분노도 커지면서 그동안 '민주당 올인'에 대한 반성 기류도 확산하고 있다. 여기에 90% 이상의 '표심 쏠림'으로 인한 지역구도 강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광주·전남 민주화운동동지회는 23일 논평을 통해 "박 당선인은 광주·전남·전북 지역민들의 새 정치에 대한 열원을 기억하고 대통합과 상생의 정치를 펼쳐 달라"고 당부한 뒤 "민주당과 문재인 후보는 보다 더 근본적인 쇠신과 변화로 국민의 사랑을 받는 정당으로 환골탈태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대선 끝나자 공공요금 인상 도미노 도시가스·상수도·통행료·택시 요금 줄줄이 올라

대통령 선거가 끝난 이후 각종 공공요금이 도미노 인상 조짐을 보여 물가불안 우려를 낳고 있다.
21일 정부 각 부처에 따르면 지난 19일 대선 직후 도시가스 도매요금, 광역상수도 요금,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택시 요금 등이 인상 계획을 확정했거나 추진 중이다.
한국가스공사는 내년 1월부터 적 용월 도시가스 도매요금 인상안 승인을 지식경제부에 요청했다. 국토해양부도 이날 광역상수도 요금과 민자고

속도로의 통행료 인상 계획을 발표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광역상수도과 댐용수 요금을 내년 1월1일부터 t당 13.8원, 2.37원으로 각각 올린다.
또 천안~논산 고속도로가 8700원에서 9100원으로 인상되는 등 8개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도 오는 27일부터 노선별로 100~400원씩 오른다.
지자체별 택시요금 인상도 전국 16개 광역 지자체 가운데 13곳이 택시요금 인상안을 제출해 이 중 부산, 대전, 울산 등 8곳이 인상 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광주시도 최근 광주택시조합이 제출한 '택시요금 인상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검증용역을 발주했으며, 용역결과에 따라 물가심의위원회를 거쳐 내년 2월 초·중순께 인상안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박진표기자lucky@kwangju.co.kr

2013년 최저임금 시간급 4,860원

- 2013년 최저임금은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등을 알리고, 최저임금액 이행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 사용자가 최저임금 주지무를 위반하거나 최저임금액 미만을 지급할 때에는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www.moel.go.kr), 최저임금위원회(www.minimumwage.go.kr)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서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

2012 국내·국제 10대 뉴스 ▶9면

광주광역시
www.gwangju.go.kr

광주의 도전은 계속됩니다!

2012년 47개 분야 수상 인센티브 193억원 확보

193억
2012
광주광역시

- 물가관리 우수사례발표대회 우수 우수상
- 지방물가안정관리 평가 최우수기관
- 지방공공요금 물가관리 최우수기관 (광역1위)
- 한국 장애인인권상(인권정책부문) 위원회상
- 2012 재난관리 실태점검 평가 우수기관
- 2012년 행정제도개선 우수기관 우수상
- 제2회 대한민국 경관대상 대상
- 대한민국 경제리더 글로벌경영부문 대상
- 2025 광주도시기본계획 최우수 기관 표창 최우수상
- 2011년 지역일자리 공시제 평가 우수상
- 2012국가브랜드 대상 수상
- 지역브랜드 커뮤니케이션 분야 최우수 대상
- 2012년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평가 최우수상
- 전국 민관협력 우수사례 공모대회 최우수상
- 심폐소생술 자발회복률 전국1위
- 화재 안전도(인구 1만명 당 인명피해율) 전국1위
- 2012 합동평가 지역특화 분야 우수상
- 2011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업무 추진평가 우수기관
- 지역복지 우수사례 선정 우수상
- 대한민국 건강행진 전국1위
- 민선5기 시도지사 공약이행평가 최우수상
- 2012년 16개 시도 장애인복지 수준평가 우수상
- 드림스타트 사업 우수기관 선정 우수상
- 2011 노인일자리사업 전국평가 최우수 기관 수상
- 지방재정 조기집행 추진실적 평가 최우수상 등 47개 분야 수상